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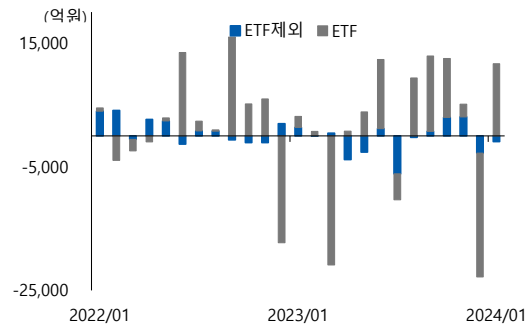


펀드도 반도체

1. 1월 주식ETF로 자금 유입 재개

- 12월 이익실현으로 자금 유출이 커졌던 국내주식펀드는 주식시장이 약세로 전환되면서 저가매수가 늘어나 국내주식ETF로 1조 1,661억원 순유입.
- 해외주식펀드 중에서는 일본과 미국, 인도의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로 자금 유입.
- 강세를 보인 분야/지역으로 투자자금이 늘어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

1월 국내주식펀드는 저가매수로 순유입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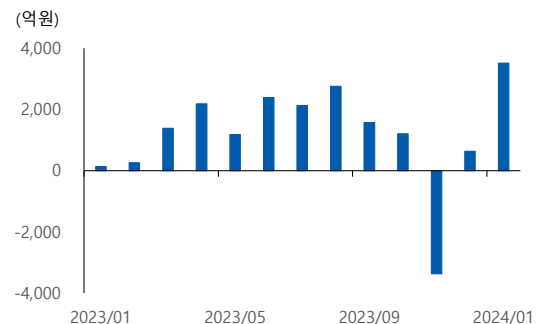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펀드도 반도체

- 2022년부터 우리나라의 주식 간접투자는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테마 투자로 특징지어짐.
- 작년 상반기의 2차전지와 바이오를 거쳐서 하반기에는 IT와 반도체로 투자 관심 이동.
- 연초 이후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과 AI 모멘텀 등으로 반도체 ETF는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1월에는 3주까지의 유입규모가 사상 최대치 기록.

반도체 관련펀드(국내주식)는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자금 유입 크게 증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1월 주식ETF로 자금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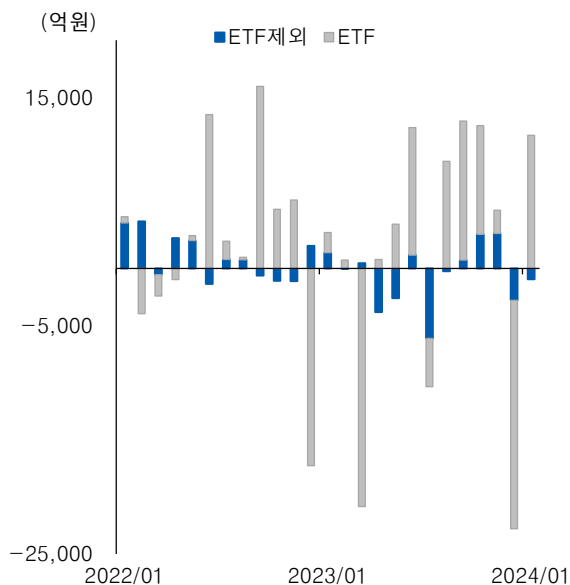
지난 12월 국내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이익실현을 위하여 국내주식펀드와 국내주식 ETF에서는 각각 2,789억원과 2조 33억원이 환매되었다. 1월 국내주식시장이 약세로 전환되면서 국내주식ETF로는 1조 1,661억원이 순유입되었다.

국내주식펀드 중에서는 KODEXTop5PlusTR과 레버리지펀드, KOSPI200관련 펀드 등이 자금 유입 상위권에 들었다. 액티브국내주식펀드 중에서는 IT관련펀드와 지배구조관련 펀드가 자금 유입 상위권에 들었다.

해외주식펀드 중에서는 일본과 미국, 인도의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약세를 보인 중국 등의 투자지역보다는 강세를 보여왔던 투자지역 선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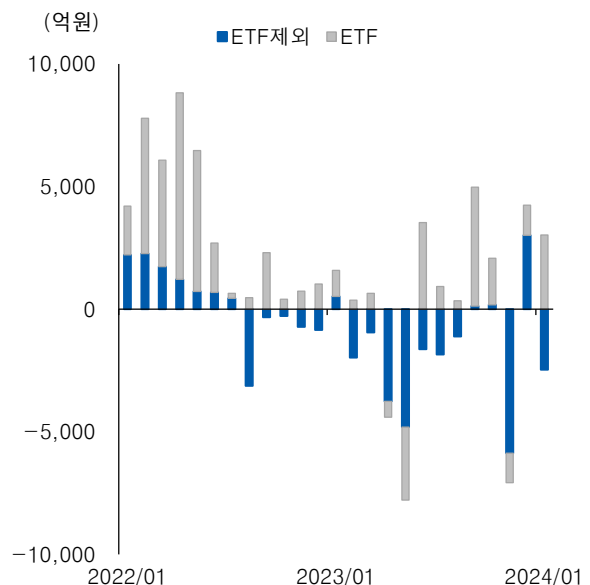
최근에는 성장을 보여주었던 분야나 지역에 대한 선호는 점점 강해지고, 그렇지 못한 곳에 투자하는 펀드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빠르게 식고 있다.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차트1] 국내주식펀드는 1월 저가 매수 늘어나면서 순매수 전환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월 19일 기준

[차트2] 해외주식 ETF는 2개월 연속 순유입.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월 19일 기준

2. 펀드도 반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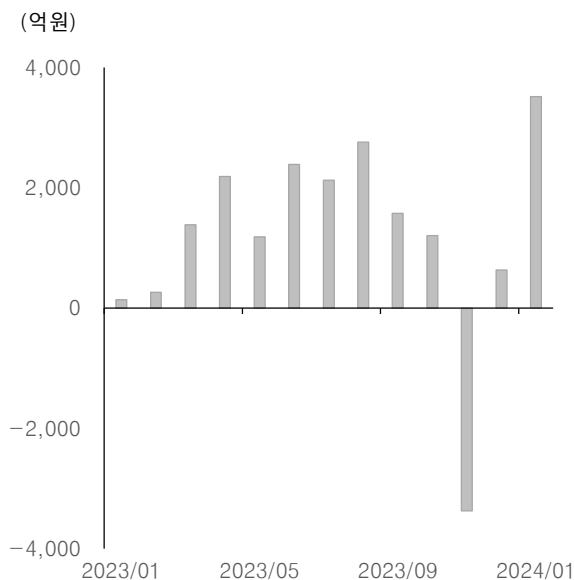
2022년부터 우리나라의 주식 간접투자는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테마 투자로 특 징지어질 수 있다. 작년 상반기의 2차전지와 바이오를 거쳐서 하반기에는 IT와 반도 체로 투자 관심이 옮겨갔다.

작년 2차전지 관련 종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2차전기 관련 펀드의 자금 유출입 변동 성도 매우 커졌다. 2차전지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작아지면서, 최근 3달은 월간 자금 유입 규모가 2천억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반도체 관련 펀드는 소부장, AI, 밸류체인 등으로 ETF 출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연초 이후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과 AI 모멘텀 등으로 반도체 ETF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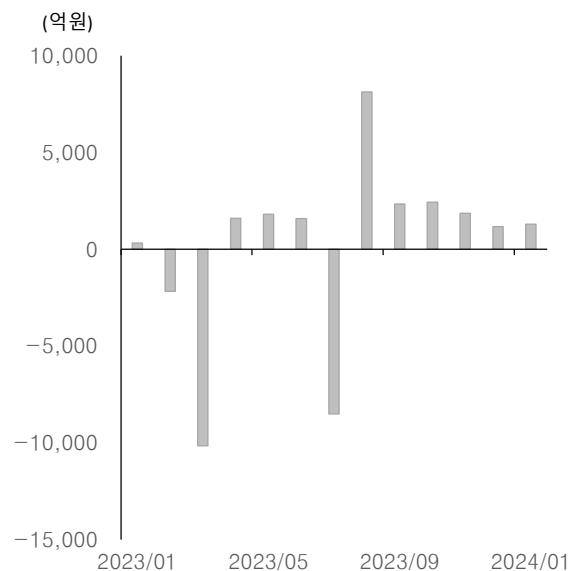
1월 19일까지의 반도체 관련 펀드로의 자금 유입 규모는 3,512억원에 달한다. 이미 3주간의 수치로 반도체 관련 ETF의 월간 자금유입 규모는 작년의 최대 수준을 넘어 섰다.

[차트3] 반도체 관련펀드(국내주식)는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1월 자금 유입 크게 증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월 19일 기준

[차트4] 2차전지 관련 펀드(국내주식)의 순유입규모는 감소세 이어짐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월 19일 기준

3. 바이오헬스펀드와 IT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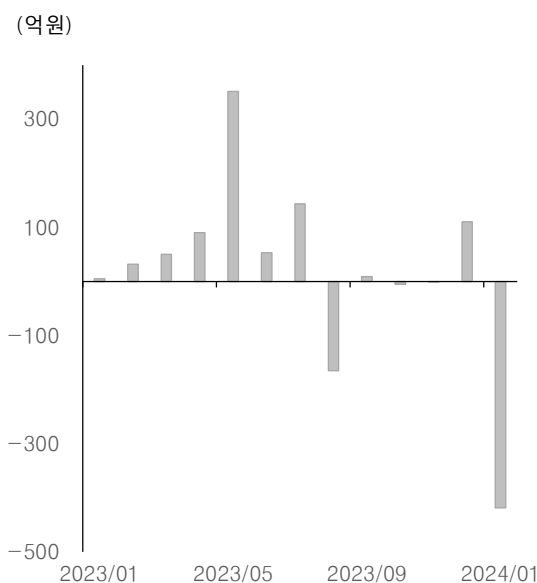
바이오헬스관련 펀드는 작년 하반기에 액티브ETF와 섹터 ETF 등이 출시되었다. 2023년 하반기 바이오헬스 관련 분야는 금리인하 기대감과 신약 개발 기대감 등으로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4년 들어 금리 인하 시기 지연 등으로 바이오헬스 관련 펀드에서는 419억 원이 빠져나갔다. 레고캠바이오, 한미약품 등의 M&A도 주식시장의 하락 분위기를 되돌리지는 못하고 있다.

IT 관련 펀드는 IT 업종 관련 펀드 중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제외한 펀드들이다. IT 대표 업종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IT 관련 펀드는 이익실현이 늘어났으나, 점차 그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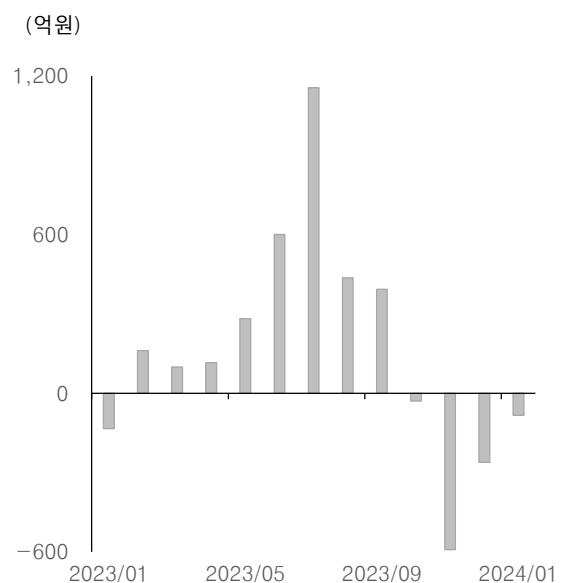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펀드 시장에서도 성장 분야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들도 성장 테마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24년에도 성장테마는 시장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트5] 바이오헬스관련 펀드(국내주식)는 1월 순유출 전환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월 19일 기준

[차트6] IT 관련 펀드(국내주식)는 순유출 규모 감소 추세.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월 19일 기준